

월간 증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3**월호



주교교육의 선행요건

충현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주일학교를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별히 교회 설립 10주년이 되는 1963년부터 「천국일군을 키우자」는 표어를 교회의 목표로 정하고 온 교회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 왔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러서는 주일학교가 15부로 확장되었고, 각 부마다 전임 지도교역자와 부지도를 모시게 되었고, 500여명의 교사와 4,000여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교역자들과 교육전문가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교과과정, 교재, 교사훈련, 주교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고, 한국 교회의 주교교육에 깊은 영향을 끼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교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여 심혈을 기울여 연구,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교교육에는 단 시일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교육이념에 대한 무지, 교육목표의 부재, 교과과정의 미정립, 교재문제, 교역자와 교사자질문제, 주교교육에 대한 무관심, 학생생활지도, 교육행정, 재정관리, 그리고 교육시설등이 년년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지만 그리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주교교육의 제반 문제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문제는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의 설정인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하는 교육의 방법론적인 면과 교육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주교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며,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부족을 느끼면서 깊이 연구하지 못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흔들리는 터전위에 빌딩이 세워질 수 없고, 항방없는 마라톤 선수가 월계관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념과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교육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교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영혼을 취급하는 교육이므로 또 다른 요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다. 주교교육에 있어서는 이것이 교육이념이나 교육목표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교육목표’라는 고지를 정복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바울 사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의 뜨거운 열기를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르며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죽음까지 너희에게 죽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살전 2:7~8) 또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선까지 허비하리니”(고후 12:15상) “내가 나를 관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빌 2:17하)

바울 사도가 소유했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교육자가 피교육자에 대하여 가진다면 교육목표는 실현될 것이고 주교교육을 뒷받침하는 인력, 재정, 행정, 시설 등이 전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3호 통권86호

3월호 차례

월간 충현

권 두 언	주교 교육의 선행요건	주 간	2
이달의말씀	지혜있는 신자	김장인	4

* 특집 / 충현주교의 교육 *

• 주교 교육의 이념과 목적	윤형철	6
• 1981년도 충현주교 교육목표	편집실	9
중공보고서	밤에만 모여 약 30명이 예배드려	이종운 11
구역 공부	교재사용 및 성경공부 인도법	김하진 15
여행보고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18
편집실칼럼	값 치루기	이형수 22
찬송가감상	주여 광풍 일어나서	김하진 22
도서정보	2월중 들어온 책	도서실 23
책 소개	나는 목사의 아내였다	김은숙 23
칼빈주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김하진 24
선교소식	선교사 · 선교지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26
신앙간증	영원한 부정이 영원한 궁정으로	윤두현 28
권찰수첩	권찰이 해야 할 일 (1)	김원남 30
새 교 우	새교우 · 결혼 · 별세자 명단	편집실 30
교회소식		편집실 31
화 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편집실 35
편집후기		편집실 34

표지설명 / 오늘도 이모양 저모양으로 열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애쓰고 있는 교육의 한 현장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지혜있는 신자

〈약 3 : 13~18〉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담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싸우는 군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군인은 자기가 서야 할 곳을 잘 분별하여 미리 준비를 잘 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는 행복자가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공연히 자기 편끼리 싸움만 합니다. 밖에 있는 원수와 싸울 준비는 못하고 마침내 원수에게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악한 원수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월남의 국민들에게서 잘 배웠습니다.

세상은 일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를 했다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자기 자신도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세월만 보낸 다음에 세상을 떠나 남에게 켄을 끼치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1. 세상적 지혜의 특징

1) 무엇이 지혜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 지혜인데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 분별력이 생길 때 이 분별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서운 칼을 쥔 사람과도 같아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력을 갖춘 자와도 같아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세상 지혜도 배워서 얻고 경험을 쌓아서 분별력이 더 확실해지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승리자가 됩니다.

2) 세상지혜의 사용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지혜를 어디

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세상적 지혜와 악마적 지혜와 정욕적 지혜로 타락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엔 욕심이 생깁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써야 내가 편안히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개인주의적 욕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양심의 등불이 꺼집니다. 양심의 등불이 꺼지면 곧 그 시간부터 미련장이가 됩니다. 어두운 세상의 길 가는 나그네가 등을 들었을 때는 앞길을 잘 살펴 갈 수가 있는데 등불이 꺼지고 나면 언덕인지, 비탈인지, 웅덩이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뛰어난 머리로 계획을 했어도 교만해져서 욕심에 쓰기 시작하면 양심의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평을 잃어 버리게 되어 치우치게 됩니다. 물질 분배에 공평을 잃고 백년 권세를 휘두를 못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 지혜를 가졌는지라 잠깐동안 반짝했다가 망하고 맙니다. 또한 정욕적 지혜를 가졌기에 하는 일마다 더러운 냄새를 피우고 또한 악마적 지혜를 가졌기에 수많은 사람 통곡시키는 저주를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므로 충현의 성도들이여, 공부를 열심히 하여 얻은 지식, 경험으로 얻은 모든 지식을 지혜로 가꾼 다음에 그것을 선한데에 쓸 줄 아는 참 사람이 됩시다.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성공과 승리의 기쁨이 되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혜도 교만과 욕심이 생기면 남에게 손해만 끼치고 자신도 회복 못하는 멸망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참 지혜의 성격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가 가질 참 지혜는 어디 있는지 본문을 통해 찾아 볼 때 일곱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참 지혜는 믿을 것과 못 믿을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몸은 풀과 같고 계획은 안개와 같고 쌓아 놓은 재산은 떨어지는 꽃송이 같은 줄 알고 나 자신이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을까,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우상도 믿을 수 없고 믿을 것은 변함 없는 하나님 한 분이 시구나'라고 믿을 것과 못 믿을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만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 분만 믿읍시다.

2) 참 지혜는 분명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믿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거룩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 소망이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땅 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3) 참 지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귀한 줄 알고 의로운 데에만 쓸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에 억만분의 일이라도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4) 참 지혜는 자신을 파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유혹을 이기거나 자기 자신을 못 지키는 사람은 달콤한 말 한마디에 끌려 갑니다. 자신을 파수하는 사람이, 내 양심에 내 생활에 죄악과 허물이 생기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5) 참 지혜는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형제끼리의 화목, 신자끼리의 화목, 내 민족끼리 화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6) 참 지혜는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 체력이 없는 사람, 재정력이, 지식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돌보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꾸어 주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7) 참 지혜는 공평한 것입니다.

물질 분배가 공평하고 권세를 누리는 자유가 공평해야 합니다. 법을 가지고 윗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아랫사람이 거기에 맞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모든 일에 공평할 때에 그 사람은 권위가 생깁니다. 공평한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공부를 많이하여 지혜가 넓어저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겸손한 사람이 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땅 위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살아 봅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피차에 화목하며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손을 펴 붙들어 줍시다. 나 자신의 인격에 파숫군을 세워 놓고 양심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다가 등불에 매 묻으면 곧 닦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권위있는 보고서를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교교육의 이념과 목적



윤 형 철 목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I. 서 론

충현교회는 창립당시부터 교회설립 28주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달리 주교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자해 왔다. 그 결과 주일학교는 단시일내에 부흥, 발전하였으며, 한국교회의 주교교육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해 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다. 교과과정의 정립, 교재문제, 교역자의 전문화 및 교사자질문제, 주교행정과 재정관리, 교육시설등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한 채 매년 문제점으로 되풀이 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문제보다도 충현교회 주일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교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확정되지 못하고, 한가지 교육이념과 목적아래 15부 주일학교가 통일성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이념이 분명치 못할 때 가르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칼라의 신앙인이 키워질 수 밖에 없으며, 교육목표도 달성될 수가 없다. 또한 교육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교육은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재력과 시설을 투자한다 해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충현교회 교육위원회와 온 교회가 주교교육 이념과 목표를 함께 연구하여 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확정되고 명문화되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주교교육의 이념과 목표 설정을 위한 연 구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성경에 나타난 교육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계약과 자기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관찰해 보고자 한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교육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맺으신 계약에서 부터 시작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 : 16-17)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킬 뿐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다. (신 6 : 4-9; 11 : 18-20)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라고 교육하셨다. (신 10 : 12-13)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가르치며,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사무엘이나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학교들이 도처에 많이 생겨 율법을 대대적으로 교육하였으며(삼상 10 : 5, 10; 왕하 2 : 3-5) 히스기야왕과 요시아왕 시대에는 온 국민이 율법을 읽고 배우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었다. (대하 34 : 30-32)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교육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교육의 간략한 개관을 통하여 우리는 교육의 주체와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을 주교교육의 이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교육이념

1. 하나님 중심의 교육

성경에 나타난 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째 원리는 교육의 대상은 인간이었으나,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하심은 인간 자신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교육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사 43:7),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심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사 43:21)인 것처럼, 인생을 교육하심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란 구체적으로 3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절대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인생의 생의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것이다.(시 3:15상) 둘째는 인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생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다.(시 139:1-10) 세째는 인생의 본분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고 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롬 14:7-8)

2. 성경 중심의 교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계명, 율례, 법도)이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교육할 때에도 자기들의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교교육은 성경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성경말씀 자체이어야 한다.(딤후 3:16) 성경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의 권위도 조직이나 교육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가져야 한다.

3. 교회 중심의 교육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족장시대에는 족

장과 그 가정을 중심으로, 출애굽 당시에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회중을 중심으로, 왕정시대에는 왕과 선지자들을 주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을 통해 교육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중심의 교육이란 말은 교회당 중심의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공동체 중심의 교육을 의미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교육은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와 지체되는 성도간의 종적인 관계와 성도와 성도간의 횡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종적인 관계와 횡적인 관계는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주교교육은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IV. 교육목표

총현교회는 교회설립 10주년이 되던 1963년에 교회 표어를 「천국일군을 키우자」라고 정하였다. 그 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표어는 총현교회의 교육목표가 되었고, 앞으로도 「천국일군양성」이라는 표어는 총현교회 교육목표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천국일군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내려지지 않았기에 교육목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던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천국일군의 정의가 명백하게 제시될 것을 희망하면서, 천국일군의 내용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천국일군」의 정의를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자)요, 둘째는 천국을 소유한 자(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요, 세째는 천국을 확장하는 자(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를 더하게 하며, 복음으로 자기 영역을 정복하는 자)이다.

한편 「천국일군」을 「하나님의 자비」라는 관점에서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요, 둘째는 부모를 닮은 자(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처럼 자기도 거룩하고 온전케 되기를 힘쓰는 자)요, 세째는 부모를 순종하는 자(하나님의 법도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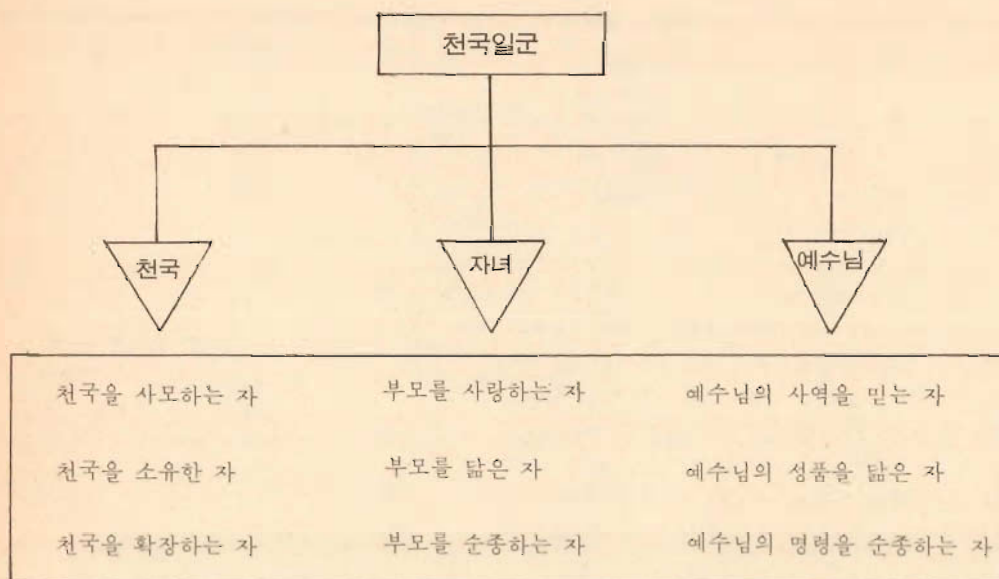
나아가서 천국의 주인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도

천국일군의 정의를 3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자(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자각하는 자)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격)을 닮은 자(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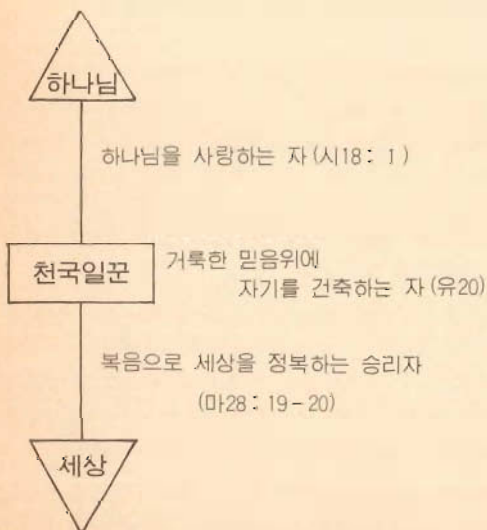
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자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자)이다.

이상에서 살핀 천국일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도식 1〉



〈도식 2〉



V. 결 론

성경에 나타난 교육을 간략히 개관하면서 교육의 이념을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이 3가지로 제시하였고, 충현교회는 이 3가지 이념을 토대로 하여 천국일군을 양성해야 할 것을 약속했다. 충현교회가 목표하는 천국일군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효자, 효녀, 자신에 대하여는 거룩한 믿음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신앙인격자, 세상을 향하여는 복음으로 자기 영역을 정복하는 승리자이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제 충현교회 주일학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교육이념 위에 분명한 교육목표를 세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젊어지고, 세계를 가슴에 안고 뛰어갈 천국 일군을 많이 배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1981년도 각부 주교 교육 목표

어린이새신자부 - 지 도 : 김 정 훈 전도사
부지도 : 인 정 옥 전도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목표 아래

- ① 예배에 빠지지 말자.
- ②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자.
- ③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자.

영아부 - 지 도 : 정 소 영 전도사

말씀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엡 4 : 1 - 6) 라는 표어아래 『신앙의 생활화』(신 6 : 5 - 9)를 목표로 한다. 이는 영아교육은 영아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정에서의 신앙의 생활화가 없으면 교육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실천사항으로

- ① 상담을 통한 영아교육
- ②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유치부 - 지 도 : 정 연 희 전도사
부지도 : 김 정 자 전도사

천국일군을 키우자라는 표어 아래 『바른 기독교관을 갖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 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어린이
- ② 복음을 증거하는 어린이
- ③ 이상적인 성도의 생활을 어릴적부터 하는 어린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할 것이다.

유년부 - 지 도 : 안 석 렬 전도사
부지도 : 김 장 근 전도사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빌 1 : 27)를 교육목표로 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총체적 내용적 교육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그 교육속에 말씀의 실제적 적용을 가르쳐 말씀이 생활속에 살도록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知)와 행(行)을 일치시키는 면에 노력할 것이다.

초등부 - 지 도 : 이 양 우 전도사
부지도 : 이 상 원 전도사

『성령 충만 받아 성장하는 초등부』를 1981년도 교육목표로 정하고 실천사항으로,

- ① 기도의 생활화로 믿음을 키우자.
- ② 말씀의 생활화로 사랑을 키우자.
- ③ 찬송의 생활화로 감사를 키우자.
- ④ 전도의 생활화로 생명을 키우자.
- ⑤ 성도교제의 생활화로 화목을 키우자.

중등부 - 지 도 : 최 봉 호 강도사
부지도 : 김 정 훈 전도사

천국일군을 키우자는 본 교회의 교육이념 아래 5가지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진력하고 있다.

- ① 늘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② 진리를 옳게 분별하도록 훈련한다.
- ③ 담대하게 전도하는 제자로 키운다.
- ④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한다.
- ⑤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가지게 한다.

고등부 - 지 도 : 조 준 상 강도사
부지도 : 원 동 석 전도사
유 회 섭 전도사

『학생들의 신앙성장과 700명의 숫적 부흥』을 1981년도 교육목표로 정하고,

- ① 말씀 공부에 주력 : 주일 낮설교를 통하여 신앙 훈련과 경건에 필요한 내용을, 주일 오후집회나 토요일 오후집회는 고등부에 맞는 성경 중 한권을 택하여 공부하며 고등부 학생들이 성경에 근거한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② 기도훈련에 힘쓴다.
- ③ 전도훈련에 힘쓴다. : 고등부 안에 있는 각 학교 중심의 목요회를 최대로 활용.
- ④ 교제에 힘쓴다.

장년새신자부 - 학습반 지 도 : 김 석 원 목사
부지도 : 정 금 숙 전도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成長)하자는 표어를 가지고 『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새신자로 성장 ②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새신자로 성장 ③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새신자로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그 실천 방안으로 그리스도인(Christian) (행 11:26)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가져야 한다. 새신자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므로 체험적인 신앙적 축복을(요한 3:2) 소유하도록 교육할 것이다.

세례반 지 도 : 김 창 근 목사

부지도 : 장 영 자 전도사

새신자부에서는 처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위해 기초신앙과정으로 6개월의 「학습반」과정을 공부하고 수료와 함께 학습을 세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신앙의 성숙한 뿌리를 내리도록 기독교 신앙의 중요 교리를 6개월간 세례반에서 공부하고 수료와 동시에 세례를 베풀어 성숙한 교인으로 양성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등록하는 새 신자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여,

- ① 열심히 배우는 성도로 키운다.
- ② 배운바 말씀을 순종하여 충성하는 일꾼으로 키운다.
- ③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로 키운다.
- ④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새신자를 알곡의 교인으로 키운다.

대학부 - 지 도 : 허 충 욱 강도사

부지도 : 성 주 진 전도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가자』는 목표아래,

- ①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
- ② 기도예 능한 하나님의 사람.
- ③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 ④ 성령의 열매맺는 하나님의 사람.
- 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

청년부 - 지 도 : 이 승 근 목사

부지도 : 황 명 길 전도사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교육목표 아래, (호 6:3)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자.
- ②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 ③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 ④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자.
- 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노년부 - 지 도 : 장 정 일 목사

축복의 조상이 되자(창 12:2)는 표어를 가지고 『노년기의 신앙교육과 생활훈련을 통하여 천국의 합적자가 되게함』을 목표로 한다.

산업전도교육부 - 지 도 : 박 동 실 강도사

부지도 : 현 정 남 전도사

산업전도교육부는 3년을 주기로 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그 외에 보완교육을 실시한다.

1981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확실히 배우고 힘써 일하며 끝까지 전하자는 표어로 하여 교육목표를,

- ① 하나님 중심 생활
- ② 교회중심 생활
- ③ 말씀중심 생활
- ④ 복음증거 생활
- ⑤ 성실한 직장인 육성

선교부 - 지 도 : 김 영 휘 강도사

부지도 : 오 치 용 강도사

유 국 남 전도사

1979년 설립시의 목표인 예수의 지상명령에 입각하여 금년은 행 19:8-10의 사도 바울의 두란노서 원에서와 같이 예수의 제자양육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교육목표를 두고 그 실천사항으로,

- ① “제자들을 따로 세움”(9절)으로써

본 선교부는 예수의 제자가 될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별도훈련도 달게 받겠다는 사람만이 입학할 자격이 있다.

- ② “날마다 강론했”(9절)으로써

본 선교부는 매일 성경공부와 선교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가정부 - 지 도 : 윤 영 탁 목사

부지도 : 정 은 표 전도사

『말씀대로 살자』(시 119:105)는 표어 아래 그 목표

- ① 말씀을 읽는 가정
- ②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
- ③ 말씀을 전하는 가정

하르빈 — 우리교포 20만명 살아

밤에만 모여 약 30명이 예배드려

필자는 1980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동안 중공을 방문할 수 있었다. 필자로서는 두 번째의 방문이었는데 방문한 지역은 상해, 심양(구 봉천), 하르빈, 북경, 광주지역이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① 제 1차 방문시 (1979년 4월) 공산권 안에서도 개인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만주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우리 교포들을 찾아 짧은 기간이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과 ② 본인이 아세아연합신학원(ACTS)에 부설된 공산권선교연구소를 통해 얻은 지식에 의하면 우리 교포 가운데는 목사가 한 분도 없으며 대부분의 신앙지도자들은 순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공산당 혁명 당시 출국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성도들은 30년전에는 세례도 미처 받지 못했던 연약한 신자들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하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깊은 신앙체질을 갖게 하려고 한 점과 ③ 오늘날 세계 교회의 이목이 중공선교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선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일에 가장 선두적 입장에서 있는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전도효과를 재 확인하여 중공 교포 선교뿐만 아니라 같은 공산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선교의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번 중공선교여행에는 필자의 아내도 동행하여 이 일을 함께 돕게 되었음을 여기에 밝힌다.

보고는 각 지역별로 나누어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과 느낀 점들을

1. 상 해
2. 심 양
3. 하르빈

의 순서로 적고자 한다.

3. 하르빈

하르빈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지난 때였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건축양식도 눈에 띄게 달라져 갔다. 러시아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비행장에서 하르빈 시내에 들어 오는 길 옆에 묵측하는 이들이 많이 보였고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의 전형적 스타일을 쉽게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 일행은 국제호텔에 여장을 풀고 송화강변을 산책하도록 인도되었다. 우리들은 꼭 짜여진 스케줄에 지루함을 표시했고 할 수 있으면 자유 시간을 달라고 불평까지 터뜨렸다. 결국 오후에 있을 공장 견학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졌고 나는 이곳 저곳 만날 성도들을 찾아 나섰다. 역시 예상했던대로 중공이 공언한 종교 자유 정책이란 외국인들을 의식한 대도시의 진열장에 늘어놓은 진열품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저들의 정책이란 일관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밖의 사람들을 갈팡질팡하게 하는 것 같다. 현재 파출소로 사용하는 옛 교회당을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개월전 외국인에게 문을 열기 시작한 하르빈에도 머지 않아 공식교회가 나타날 것으로 보였다.

라디오를 통해 예수믿어

하르빈에서 만난 S씨는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인물이었다. 그는 6년전 우연히 자기가지고 있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다가 한국에서 보내 주는 아세아방송을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곧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찾기 위하여 방송국에 서신을 띄우기 시작하면서 홍콩선교사로 계신 홍종만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홍목사님의 정성어린 수고의 결과 결국 그는 서울의 삼촌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종 윤 목사

본 교회 협동목사
아세아연합신학원 교수
철학박사



또한 그러는 동안 수십통의 서신을 홍목사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그 서신의 내용속에는 항상 전도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또 라디오를 듣노라면 사랑과 용기를 일으켜 주는 귀한 설교가 들려 오게 되어 결국 이들 부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결심을 하고 그날부터 성경을 구해 읽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만나 그들 부부와 다른 친구 한 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제부터는 가족의 생활비는 아내의 직장 수입으로 충당하고 자신은 외국에서 보내오는 성경을 들고 만주 벌판에 전도하러 나서겠다고 결의까지 보여 주었다.

또한 필자가 서울을 떠나기 전 극동방송의 유관재 부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자료의 도움을 입었다. 또한 그분의 청탁으로 몇가지 전달할 물건도 가지고 갔다. 그중 하르빈의 어느 형제에게 전해 달라는 일본 잡지 한권을 S씨에게 전해 줄 수 있느냐고 내어 놓았더니 「교를 믿는 분들은 이처럼 한 사람의 작은 요청까지 다 들어 주며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북조선에 두번이나 방문했지만 이제야 내 생애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 바쳐야 할 것 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힘있게 말을 끝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붙들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지라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교포 20만에 가정교회 세 곳

본래 하르빈은 천주교가 왕성하던 곳으로 이곳에 우리 교포가 약 20만명 살고 있다. 7 개구로 된 곳에 가정 교회가 세 곳 있으나 이들은 주일 오전에는

모이지도 못하고 밤에배에만 주일과 수요일 두 차례 모이는데 전체 회집수는 약 30명이 되었다. 그 부근에 있는 연길과 봉계 그리고 치지할에 몇분씩 오는 단독으로 모이는 소집단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들과의 연결을 위해 밖에는 교회들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선교라는 명목하에 너무 조급히 접촉하는 가운데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이 아파트에서 모이는 것을 어려워 하게 됨으로 자연히 독립주택이 있는 성도의 가정을 찾게 되지만 중공에서 독립주택에 사는 가정이면 중상류층에 속해야 몇 집 있을까 말까인데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인상 깊은 「조선족 체육대회」

하르빈 거주 「조선족 체육대회」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연 3일간 열렸다. 4년에 한번씩 열린다는 이 대회를 위해 모든 조선인은 공장으로부터 휴가를 얻었다면서 새벽부터 운동장으로 모여 들었다. 그네, 널뛰기, 축구, 배구 그리고 씨름 등의 다채로운 경기종목을 가지고 열리는 이 체육대회의 입장식에는 약 1,000여명의 여인들이 한복을 입고 도라지 타령을 부르며 춤을 추는 시간도 있었다. 우리는 31번석에 초대되어 운동경기를 구경하는 동안 웃지 못할 서글픈 사실과 이야기들을 우리의 동족들로부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80세가 되신 할머니는 경상도 거창이 고향이시지만 28세때 만주에 온 후 아직도 고향에 가보지를 못 했다고 한숨을 쉬시면서 나를 보고 묻는 말씀중 「남조선의 생활은 어떤가? 그리고 이렇게 여행하는 경비를 당에서 대어 주는가? 남조선 동포

들은 일본처럼 잘 산다는데 정말인가?」하며 알고도 모를 질문들을 내어 놓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합법적 정부인 이상 마땅히 중공의 우리 동족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필자는 차례에 우리 정부를 향해 몇 가지 건의를 해 보고 싶다.

①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의 실현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추구하되 중공 땅에 사는 우리 동족들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벌려 저들의 서러움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② 국교를 정상화 시킨 미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라도 조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재일교포 모국방문단과 같은 형식을 밟아 국가 보조금을 지출해서라도 저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③ 아세아방송과 극동방송과 같은 복음방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므로 복음전파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깨끗하고 고상한 이미지를 중공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에게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수준미달의 요양소 및 공장

우리 일행은 노동자 요양소와 방직공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선전을 위한 전시장처럼 노동자 지상낙원을 꿈 꾸 사회를 건설했음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애써 흔적들이 보였지만 함께 동행한 서양인들의 눈에는 참으로 웃지 못할 가관인지라 모두가 헛바닥만 날름거리면서 고개만 끄덕여 줄 뿐지루하다는 표정뿐이었다. 농촌에서 건축술을 보여 준 다면서 차를 세운 곳은 어느 집단농장 입구였다. 대나무를 세워 놓고 이층집을 세우는 모습이 하도 초라하여 사진의 대상물이 되기에 적합했다. 정말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인생면집」이라는 한글 간판이 눈을 끌었다. 호기심에 끌려 들어 가 보았다. 조선인 종업원 5명이 일하는 이 음식점의 주인을 물었더니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서 손님이 너무 많아 앉을 자리가 없다면서 별실로 안내를 받았다. 별실아닌 창고에 들어가 식탁 옆에 있는 물통을 열어 놓고 그 위에 방석을 깔아 주는 것이었다. 병면 한 그릇에 50전(미화35센트)이지만 모밀국수를 간장에 띄운 것에 얹게 된 캐비지와 그 위에 고기를 세쪽 얹어 놓았다. 사람이 달라지면 음식 맛도 달라지는가 보다. 나는 그날밤 복통이 생겨 소화제 신세를 지야만 했다.

「어린이공원」을 보여 주면서 공산주의 나라에서 자라나는 어린이가 대접을 받고 자란다고 자랑했지만 뿔혀 온 어린이들은 외국인 앞에서 인형 노릇하

기에 너무 피곤해 보일 뿐이었다. 마치 군대와 같이 질서를 지키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내게는 처량해 보였다. 그리고 그 공원에 들어 오고 싶어 정문 앞에 모여있는 다른 동식물들을 생각하면 이곳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냐는 질문이 북구멍 너머까지 나오는 것을 참았다.

의사 50명의「조선족병원」

「조선족병원」간판이 우리말로 선명히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문을 열고 들어 섰더니 킁킁한 병원 내부가 조용하기만 했다. 들어서면서 왼편에 작은 창구가 있어 들여다 보니 「약제실」같이 보이는데 흰카운터를 입은 여인들이 여기 저기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문을 노크하면서 들어 갔더니 외국 손님이라면서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대개 50대 전후의 여인들이 밝은 웃음을 보여 주며 우리 말을 깨끗히 하고 있었다. 필자가 한국의 소식과 미국의 교포의 사들의 상황을 이야기 해 주었더니 서울 말씨가 골다드니 정말 오랜만에 서울 말씨를 듣는다면 호기심과 부러워하는 눈치로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 병원은 의사가 약 50명 있으나 시설이나 저들의 실력은 수준이하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 원장이라는 50대의 여자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 서울에 친척이 산다는 어느 약제사가 가족에게 소식 좀 전해 달라고 애원하자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조카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고 하소연하자 원장도 이를 허락,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과거 경력과 가정사정을 들려 주었다. 누가 우리 민족을 이처럼 잘라 놓았으며 누가 이 백성의 결합을 방해하는 자란 말인가?

나는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분단의 비극을 뱃속 깊이 느낄 수가 있었다. 서울에 친척을 가진 그 여인의 남편은 그곳 조선중학교 부교장이라고 했다. 조선중학교에서 영어선생을 구하고 있지만 조선말하는 사람 가운데 영어를 가르칠 분이 없다고 걱정이었다. 「누가 이 험한 곳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여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속으로 기도했다.

1년 사이에 놀랍게 변한 북경

우리가 북경에 도착한 것은 땅거미가 막 내리기 직전 초저녁이었다. 필자가 작년에 보지 못했던 새 공항 건물에 눈에 띄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비행기 시간을 알리는 컴퓨터 장치와 같은 현대식 시설들이 모두 새로운 것들이었다. 일년 사이에 이처럼 달라 질 수가 있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었다. 일본 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 다니고 있었다. 중공 사람들에게

게 고무신 한 짝씩만 팔아도 9억 5천만개가 될 터이니 경제적 센스를 가진 일본인들이 군침을 흘리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북경에 머무는 동안 만리장성과 자금성 그리고 소련을 의식하고 만들었다는 방공호(지하도시)와 모택동의 유해를 전시한 기념관등도 흥미있는 구경거리였지만 필자에게는 아무래도 대학을 방문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북경시외에 있는 청화대학을 방문하니 마침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입사를 하는 날이었다. 푸대조작으로 묶인 그리고 가마니로 포장된 짐보따리가 캠퍼스에 나란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물었더니 학생들이 농촌에서 북경에 공부

하러 오면서 가지고 온 개인 소유물이라고 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트렁크 하나 없이 짐마차에 실려 온 보따리가 중공의 오늘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만 같았다. 유학생과 교환교수의 가능성을 타진 해 보았지만 모두가 정부 수준에서만 가능하다고 잘라 말하고 있었다. 북경에서는 별다른 선교 활동을 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광주로 내려 와 호텔에서 일박한 후 기차로 홍콩에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중공혁명에 관한 선전을 해주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넓게 펼쳐진 대지 위에 시선을 보내므로 더 큰 위로와 감격을 체험하면서 여행을 마치게 되었다. (끝)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합니다

중현교회 출판국에서는 중현의 강단을 통해 말씀 되어지는 설교 및 강해와 찬송등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 보급하고 있는 종류는

- ① 김창인 목사의 주일설교 및 수요강해
- ② 협동목사의 주일설교
- ③ 부목사의 주일저녁설교 및 수요설교
- ④ 성가대의 찬송가 선곡 (1) (2)집 및 영아·유치·초등부 찬송

종 류	보 급 가 격	내 용
90분짜리	1000원	설교포함, 예배순서 전체
60분짜리	700원	설교만
찬 송	1000원	영아·유치·초등·찬송가 (1)(2)집
녹 음	60분 300원 90분 400원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할때

● 보급소는

교회 들 우측 「카세트 보급소」에서

● 문의 및 신청

월간중현편집실 전화: 260-3407, 3408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출판국

교재사용 및 성경공부 인도법

김 하 진 목사

(심방위원회 교육분과장·
성가부지도)



1. 집필동기와 그 과정

새해부터 구역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역예배를 계속한다면 교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작년부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한때는 구역예배를 새해부터는 중지해 보려고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각 구역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이견을 제출하였다. 그 이유는 타 교회에서는 오히려 구역집회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타교회 구역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더러 있고 개중에는 교회를 옮기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다. 교역자들과 교인들의 중론이 구역집회를 계속해야 된다는데로 기울어졌고 이렇게 하여 교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우리의 손으로 교재를 만들자는 것

이 결론이었다. 그래서 여러 교역자들이 의론한 끝에 작년에 예비공부를 시켰고 우리 교회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써야 된다고 하여 반 역지로 부족한 사람이 떠 맡게 되었다. 몇번 사양을 했으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가 하든지 언젠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기도하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의 머리속에는 언제나 구역공과집필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 말경이다. 11월, 12월이 지나고 1월이 다 가도 대체 윤곽이 잡히지 않는다. 이때부터 당황하게 되었고 때로는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을 새운 날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책들을 모아 참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고 공과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2월20일경에 집필 목록을 작성하고 나니까 구역공과 전체의 50% 이상이 성공된 것같은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자신까지 생겼다. 나는 이때 하나님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신·구약을 56과로 나누었고 각 과목에 제목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작성된 제목을 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분량의 성경(본문)을 어떻게 하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조직적이면서도 큰 제목들만 보고 그 과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알기 쉽고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교재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서론」으로 「성경에 관하여」를 집필하게 되었고, 제 1과 「창조의 역사」를 집필하였다. 그래서 이 두과를 쓰는데 1주간의 동기를 가지고도 끝을 못낼 정도였다.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위낙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어느 곳에서 출판된 교재보다도 더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 들어(고전 1:27-29)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아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성경공부」 교재를 쓰게 하심에 그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뿐이다. 할렐루야!

2. 구역성경공부 목적

이번 구역성경공부의 목적은 아래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1) 각 지역 복음화이다.

각 구역을 그 지역내 성경학원화하여 이미 믿는 성도들은 말씀에 충만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물론 모두 참석하여 성경공부를 해야 하겠으나 그 지역내에 믿지않는 사람들을 성경공부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2) 구역을 성장시키는데 있다.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생명이 성장하게 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공부에 참여시키므로 저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구역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있다.

성경말씀 공부를 통하여 영적 생명이 성장한 교인들이 모이게 되고 구역에 식구가 늘게 되므로 자연히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발전하게 된다.

4)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성경 공부하는 운동을 통하여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생활이 성도들 자신의 생활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지역 사회에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데 있다.

3. 구역 성경공부 공과내용

앞으로 집필하게 될 구역 성경공부 내용은 크게 네부분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 첫째 부분은 제 1부로서 구역 39권을 32과로 나누었고 제 2부는 신약 27권을 24과로 나누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56과로 나누어 앞으로 계속 집필하면서 구역 성경공부 공과로 사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집필이 끝나게 되면 계속해서 제 3부, 제 4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 3부에서는 교리적인 문제를 14과로 요약하려 하며 제 4부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계된 내용을 집필하려고 생각한다.

구역 성경공부 공과 내용은 본문 말씀 그대로를 분석하고 요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자세한 집필 내용은 이미 교재로 나온 서론과 제 1과 「창조의 역사」(창 1-11)를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4. 구역성경공부 공과의 특징

1) 성경 66권에 있는 본문 그대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성경공부 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짧은 시간내에 끝낼 수도 있고 많은 시간에 걸쳐 공부할 수도 있다.

3) 공부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구역강사가 주입식으로 읽어가며 할 수도 있고 모인 사람들끼리 돌아가며 한 대목씩 설명하도록 할 수도 있고 작은 제목에 나타난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말하게 할 수도 있다.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교재다.

4) 계속적인 공부가 된다.

전에는 구역집회에 모여 공부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본 공과는 집회가 끝난 후 가정에 돌아가 개인이 혹은 가족 식구들끼리 모여 하루에 성경을 몇장씩 읽어가며 가정성경공부문제를 풀어보게 하므로 계속적인 성경공부가 되고 성도가 마땅히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공부도 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특히 가정성경공부 문제양식을 다양하게 만들었으므로 혼자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지루한 점이 없도록 하였다.

5) 답안지를 따로 만들었다.

이것은 문제지에 답을 써서 제출하게 되면 후에 궁금했던 문제를 다시 참고하려 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된다. 그래서 본 교재 문제는 언제나 교안과 같이 남아 있게 하고 답안지만 따로 제출케 하였다.

6) 매 책마다 개요를 넣었다.

예를 들면 창세기나 출애굽기, 혹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이전에 간단히 그 책에 대한 개요를 요약하므로 성경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7) 조직적인 배열을 했다.

이것은 매 과마다 제목이 있고 그 제목에 따르는 큰 3개 정도의 대지를 두었고 각 대지안에 한 서너개의 소지를 두고 또 그 소지속에 작은 소지를 두면서 설명을 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제목들을 붙였다. 그리고 설명을 쓸 때는 교리적인 것이나 어떤 학설같은 것은 모두 삭제하는데 노력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와같은 것이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밖에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될 수 있는대로 쉽게 하자는데 주안점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할 때는 함축성 있는 말로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려 하면서도 이야기식으로 기억에 남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8) 부교재를 사용했다.

간단한 도표나 지도나 그림을 넣어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5. 구역성경공부하는 법

1) 구역성경공부 집회순서(각 구역에서 사용할 순서)

- ① 찬송: 한곡을 두번 혹은 세번 반복하여 부른다.
- ② 기도: 간단하게(구역성경공부집회를 위하여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한다) 기도한다.

③ 성경공부: 5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방법은 구역형편이나 장소나 모인 분들의 형편에 알맞도록 하면 된다.

④ 토의: 10분정도가 적당하다.
교리적인 문제는 피하고 공과 가운데 나타난 교훈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⑤ 찬교: 20분 정도면 좋겠다.
지난날 자신이나 가정 혹은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게 하고 특별히 기도를 요하는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찬교를 나눌 것이다.

⑥ 마침기도(주기도)
이상으로 구역성경공부를 모두 마치되 1시간 30분 이상은 절대로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역성경공부가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인도자는 노력해야 한다.

2) 구역강사(구역장)가 지켜야 할 것

① 시작시간 30분전에 회집장소에 도착하여 기도하며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오늘의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을까? 를 계획하며 준비한다.

② 그날 구역성경공부에 참석할 인원은 10 분전에 전부 도착하도록 권사님들이나 권찬님들이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③ 구역성경공부 교안을 배부하고 전주에 작성한 가정성경공부 답안지를 거둔다.

④ 구역성경공부 참석자 출석부를 작성하여 집회 때마다 점검하고 교회의 요구가 있을때 언제든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⑤ 불신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전 구역원들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권장한다.

⑥ 될 수 있는대로 성경공부를 할 때는 참석한 인원이 다 한번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고 강권해서는 안되겠다.

6. 구역강사 예비공부에 관하여

1) 공부시간

구역강사들을 위한 예비공부는 매월 둘째주일 저녁예배가 끝난후 본당에서 실시한다. 이날 훗집회는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여 한달용 두과를 1시간 이내에 공부를 마칠 예정이다. 앞으로는 연구수업 형태의 공부방법을 활용해 볼 계획이다.

2) 참석대상

구역성경 예비공부에 참석하실 분들은 구역강사(구역장)는 물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참석하여 공부해야 한다. 그것은 언제든지 어떤 구역에서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구역 식구들이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앞서 지도자로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회가 있는대로 그룹 성경공부 리더(Group Bible Study Leader)를 많이 양성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

이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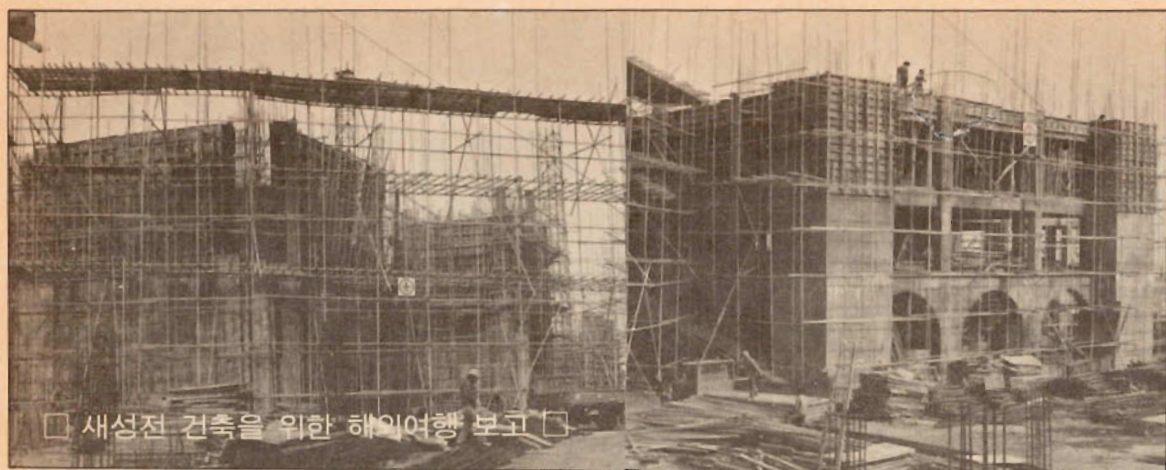
한방내과 · 부인과 · 소아과 · 침구과 · 정신신경과

우 기 전 한 의 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202
(경 찰 병 원 입 구)
전 화 : 2 5 4 - 8 8 7 3



우 기 전 장로



□ 새성전 건축을 위한 해외여행 보고 □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집사

(새성전 건축현장 감독)

오늘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 충현교회를 건축케 하시는 하나님은 충현의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하고 말없이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새성전 공사현장에서는 배우고 연구하고 면밀히 인쇄해가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우리는 미련하고 무식하지만)한 단계 한단계 공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건축은 고도로 발달되어 가는 물질문명에 맞추어 나아가 새로운 공법의 도입과 최신행의 기재나 기구, 최선의 정성으로 공사에 임해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구형의 퇴보된 건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피카음향장치, 텔레비전장치, 방송시설, 통신장치, 건물의 문과 창문 냉난방장치, 전기설비, 이러한 것들을 최신행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외부의 모형은 초대교회 형태나 고대건물의 양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교회다 하는 관념(image)이 머리속에 박혀서 후손에게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국가적으로 보전 할 수 있도록 조심성있게 정성을 쏟아서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물질이나 문명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선교는 월등히 앞서서 선진국으로 자부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나안 복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며 최신행의 내부장치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의 것들만 보고 배워서 설계하고 건축하는것은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느끼고 교회적으로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의 지배적인 여론이 외국에 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서 새성전 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건축위원회와 당회와 제직회에서 해외 여행을 시킬 것을 결의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기술을 담당하는 본인과 오진국장로님 노광현장로님 등이 일행이 되어서 해외 여행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나라 여행 한 것을 사진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일본의 순서로 몇차례에 걸쳐서 소개 하고자 하오니 출필이라도 용서하시고 새성전 건축에 성도 여러분이 다같이 참여하셔서 설계하고 공사하신다는 심정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편 □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오후 7시 가량이 되었다. 공항에서 나오니 미스터 홍이란 분이 마중을 나왔다. 그분은 윤종성장로님의 큰사위로 직장은 아메리카 에어라인(America Air Line)의 직원이었다.

우리 일행은 그분이 안내하는대로 올림픽 모텔로 숙소를 정했다.

로스엔젤레스는 한국인, 교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타국같은 느낌이 안들 정도였다. 그 이튿날 홍 선생이 인도하는대로 라성빌라델비아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회의 외부가 아담하게 시야로 들어왔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조천일목사님도 차를 타고 교회로 도착하셨다. 목사님 내외분은 우리 일행을 퍽 기쁘게 반기시며 서울의 안부를 물으시면서 교회의 직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소개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중현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중현교회나 마찬가지로 말씀했다. 그곳에는 제2성가대 지휘자였던 임정배선생도 그곳에서 전도사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다.

조목사님께서 교회 내부를 보여주는데 내부의 의외로 넓었다.

강대부분은 반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에서 볼 때 극장에서 프로세니엄아치(Proscenium Arch)가 있는 무대형태를 갖추고 좌석은 전체를 반원형으로 회전시킨 모양으로 극장의 오디토리움(Auditorium) 계단식 경사좌석 배치) 같은 배치이므로 앞좌석이나 뒷좌석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장면이 시선 장애를 받지 않고 잘 볼 수 있는 배치이었다. 강대부분으로부터 제일 뒷좌석까지의 거리는 약 30m 미만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으며 총좌석수는 1200~1500석이었다.

강대의 목재는 레바논의 회양목을 꺾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회양목을 간단히 소개하면 산지는 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생산이 되는데 세종문화회관의 무대가 캐나다의 회양목(원명 Yellow Cedar)을 사용했으며 이 나무의 장점은 가볍고 갈라지지 않으며 질기고 탄력이 있는 나무이다. 레바논의 회양목은 최고의 것 일 것이다.

외벽창문은 스테인드그라스(색유리 Stained Glass)를 사용해서 햇빛이 들어올 때는 오색의 빛이 찬란했다. 음향관계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 분위기는 퍽 아늑한 분위기였다. 이 건물은 과거에 유대인의 소유인 유대교성전(Judah Temple)이었던 것을 라성빌라델비아 교회가 샀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짓는다고 해도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라성빌라델비아 교회는 로스엔젤레스 주정부에서 지정한 보호건물이라고



〈라성 빌라델피아교회 강대부분〉

〈라성 빌라델피아교회 내부좌석 배치〉

한다.

교회는 매우 좋은 건물이지만 교육관이나 기타 대소 집회실, 교육시설은 앞으로 계속 시설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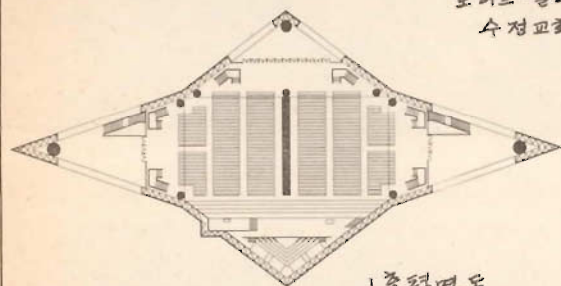
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다. 로스엔젤레스의 한인 성도님들은 이런 좋은 건물을 받았으니 참 축복을 받았구나.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도 '우리 한국인 성도가 복음을 배우고 선교해서 미국의 제2의 청교도가 됩시다' 하는 설교를 듣고 감개가 무량하게 은혜를 받았다.

그 이튿날 라성빌라델비아 부목사로 수교하시는 안목사님께서 교회의 마이크로 버스로 로버트 슐러목사가 시무하시는 교회를 안내하겠다고 하셔서 그곳을 향했는데 약 1시간 고속도로로 달려서 갔다. 그곳에 들어가니 약 2~3십만평으로 보이는 넓은 대지 위에 수정교회와 과거에 지은 광장교회와 도서관 건물과 TV방송국 시설이 되어 있는데 들어서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정교회였다. 약 4천 성도가 예배 볼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 벽과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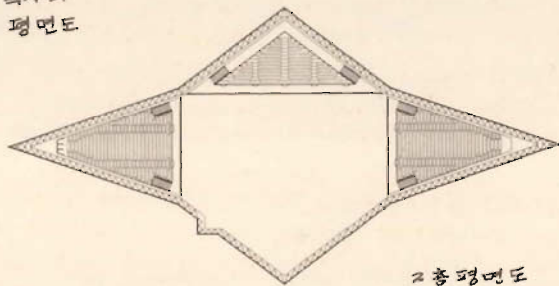
수정교회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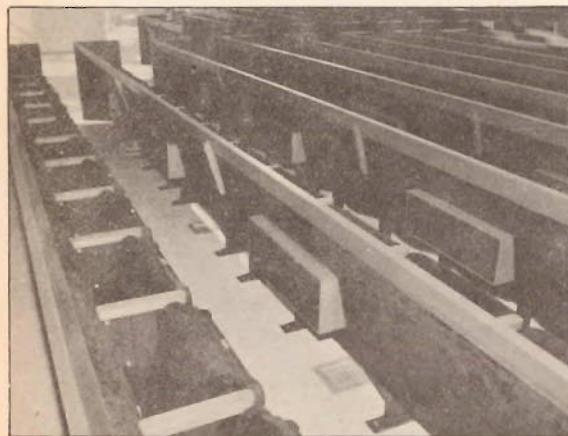
로버트 슬러목사의
수정교회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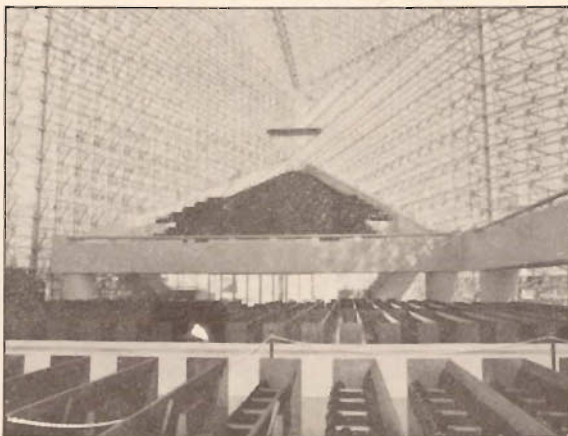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로버트 슬러목사가 시무하는 수정교회 좌석에
붙어 있는 스피커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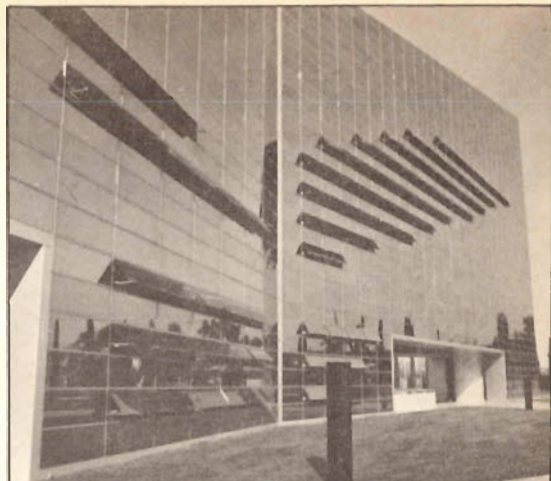
〈로버트 슬러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내부〉

성 전체가 유리로 되어있고 건물의 벽의 일부가 전동으로 열릴 수가 있어서 광장에도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차에 TV가 있다면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광장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몇천명이고 몇만명이고 예배 볼 수 있게 시설된 것이 특징이다. 외부에는 기둥형(Post Style) 스피커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으며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시설이 참으로 놀랄 정도로 설치되었고 수정교회 내부의 구조는 완전히 파이프 구조로 전체가 수정형으로 문자 그대로 거대한 수정체가 서 있는 느낌이 들 정도이었으나 역시 유리이기 때문에 음향에는 아주 좋지 않은 구조이었다. 안내자의 스피커음향이 대단히 울리는 것을 느꼈다. 물론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유리 끼울때 하나하나에 진동을 건디는 장치를 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유리 자체가 음의 반사가 대단한 것이고 또한 철재 파이프 한개한개의 길속에서(금속성 이기 때문에)음에 의한 떨림진동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지 좌석 장의자 1개마다 앞좌석 뒤에도 조그만 스피커가 3개씩 붙어 있어서 근본적인 음향은 처리가 될 수 있었으나 음향면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분위기 면에서는 효과를 잘 나타냈다고 보겠다. 제일 뒤편에는 줄렌스가 붙은 TV가 매라가 7개씩이나 붙어 있어서 예배보는 장면을 중계하거나 녹화하기에 지장이 없이 잘 되어 있었다.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안목사님이 직접 자동차 운전 해 가면서 완전히 하루의 스케줄을 내어서 우리 일행을 안내해 주신데 대해서 그 고마움은 말로서 형용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 다음날 우리 일행은 히리우드에 있는 기념교회를 찾았다. 교회의 이름은 히리우드 기념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이었다. 교회는 과거 크지는 않지만 아담한 고딕형의 교회이었는데 한가지 눈길을 끌었던 것은 콘크리트 자체만으로 돌의 모양을 충분히 살렸다는 사실이었다. 참으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꽃모양과 식물의 이파리 모양을 살렸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떠 올랐다.

성경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희생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기 싫어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건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간헐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억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수정교회 외부에 말뚝형 같이 보이는 광장 스피커. 이런것이 외부에 가끔 눈에 뜨인다. 이것은 야외 예배를 위한 것이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6:1~10)

큰 교회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불과 1,200여명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니

외부의 종탑이 2개가 있다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것 같았다. 이렇게 콘크리트만 가지고도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 우리교회 내장 고딕식 창문모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공법을 잘 설계해서 우리 충현교회에서 사용한다면 참으로 경이적인 평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것만 보고 배운 것이 우물안 개구리 같았고 부끄럽기만 했다. 이렇게 출장하게끔 하여주신 하나님과 충현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교회를 안내한 것은 우리를 점심식사에 초대하여준 나의 고교 동기 동창생 친구인 로스엔젤레스 연합장로교회 장로인 김희근장로 댁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저녁식사에 초대한 당회장 김창인목사님 장남인 김성주 집사님 댁에 가다가 보았는데 참으로 두 분에게도 고마움을 느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기치 않던 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

값 치루기

이 형 수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고 또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에 합당한 값을 치루고 결과를 얻었을 때만이 우리는 그 결과에 만족하게 된다. 이런 값을 치루는 일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개인의 인격, 한 단체의 성쇠, 국가의 흥망에 까지 작용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그동안 한창 시끄럽고 복잡했던 입시에서도, 또 요즈음에 부쩍 많이 하는 국제경기에서도, 프로권투에서의 참피언십을 따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의학도가 의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많은 이익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한 아기를 탄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린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등등 우리 생활주변에 모든 것을 돌이켜 볼 때 결과에 합당한 값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치루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보다 더 쉽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의 구주자이시며, 주님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값을 치루셨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귀한 값을 치루고 얻은 새생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값을 치루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매일 저녁 성경공부를 하는데 시간의 값을 치루지 않고 어떻게 효과를 얻을 것인지, 믿음과 순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정욕을 참는 값을 치루지 않고 어찌 참다운 신앙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자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참피언이 되기 위해 치루는 물질, 시간, 자기절제 등의 값을 치루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 값치루는 일이 너무나 당연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의 치루는 값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확실한 결과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여 광풍 일어나서

(새 659)

주여 광풍 일어나서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피할 곳 없읍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돌아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풍과 내뿜 북풍하리라 잔잔해
파도가 흥흥한. 바다나
해치려는 마귀와 아무것도
온 세상을 맡은 주 누신 배
파선케 할 능력이 없도다
다 순히 날 북풍하리니 잔잔해 잔잔해
다 순히 날 북풍하리니 잔잔하라

바다에는 크고 작은 물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된다. 이 풍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풍랑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놀라 무서워 떨게 되 이것이 또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 넣곤 한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 하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던(마 8:24-26)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속에 도사리고 있는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흥흥한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주님!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꾸짖어 잔잔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속에 광풍이 몰아치려 할 때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사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풍랑으로 민족이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라가 파선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충현의 성도 여러분! 아니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러 봅시다.

이 찬송은 어려서부터 인생의 풍랑을 경험한 베이커(Mary Ann Baker)양이 1874년 작시했고 파머(H. R. Palmer)목사님이 그해 곡을 붙였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2월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참고서

- 1) 교파사전: 정훈성, 박기원공저, 성도출판사, 1980, 701P.

2. 주석

- 1) 요한계시록해설: 팀 라하이저, 김의자역, 보이스사, 1980, 578P.

3. 기독교교육

- 1) 교육신학과 실제: 워처즈, 로런스저, 문창수역, 정경사, 1980, 397P.

4. 기독교윤리

- 1) 사후의 세계: 롤링스, 모리스저, 김국진역, 보이스사, 1980, 261P.
- 2)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이를 위하여: 나라모어, 브루스, 밀카운트공저, 권명달역, 보이스사, 1980, 297P.
- 3) 피난처: 봄, 코리텐저, 김의자역, 보이스사, 1979, 441P.

5. 이단종교

- 1) 이것이 물몬교다: 김순명저, 국종출판사, 1980, 224P.
- 2) 지옥에서 온 편지: 탁명환저, 국제종교문제연구소발행, 1980, 356P.

6. 교회행정

- 1) 교회행정학: 조동진저, 크리스찬헤럴드, 1980 371P.

I. 기증도서

1. 카일·멜리취구약주석 10권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룻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하: 카일·멜리취공저 기독교문화출판사, 1981.
(김기정장로 기증 - 총판 정음서림)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중현」편집실.....

◇ 책 소개 ◇

사비나 범브랜드 저 박은세역

나는 목사의 아내였다

보이스사 430페이지 3,000원

“일이 끝나면 여인들은 신자들에게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까지 했다. 성경의 말씀들이 희망과 위로와 생명을 주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성경이 없었다. 우리를 자신도 빵보다 더 갈급하게 사모되는 것이 성경이었다. 전에 좀더 외워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하고 생각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은 1948년에 체포되어 14년간 공산당 감옥에서 복음을 위해 투쟁한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진 「리처드 범브랜드」목사의 부인 “사비나 범브랜드”여사의 저서로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옥중 투쟁 신앙실화이다.

이 책속에서 저자는 공산당의 지독한 박해와 그 속에서 받는 성도들의 고통, 여기에 곁힐 줄 모르는 지하교회의 모습을 저자가 경험한 그대로를 생생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주고 있다.

성경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나 안일주의에 빠져 핑계하며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리라 믿는 바이다.

김 은 속 전도사 <제1 지구심방담당>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우리가 칼빈주의를 말할 때는 아무래도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의 5대교리」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호에서는 ① 칼빈주의의 5대교리가 어떤 이유로 형성된 것인지, ②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해설코자 한다.

1. 「칼빈주의 5대교리」의 기원

「칼빈주의 5대교리」가 형성된 것은 17세기 초 화란에서 발생한 신학적인 논쟁에서부터이다. 당시 화란 신학교 교수였던 알미니우스(James Arminius)가 죽은지 1년된 1610년에 그의 제자들이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것에 기초하여 5개 조항을 만들어 칼빈주의 기독교 국가였던 화란 정부에 항의하여 제출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항의문에서 벨직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of Ferth)과 하이델버그 신앙문답서(Heidelberg Catechism)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의 5대교리」를 요약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대한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버그 신앙문답서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 무조건 선택(예정),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인내등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의 구원

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능력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화란 정부는 1618년 11월 13일 화란 남부지방 도시인 돌트에서 총회로 84명의 총대와 기타 행정원과 각국 대표를 합쳐 129명이 모여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견해를 성경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다음해 5월 9일까지 약 7개월간 계속하며 154차의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시한 교리가 성경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칼빈주의 5대교리」가 성경 말씀에 입각한 참된 교리라는 결론을 얻어 정식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Tulip(5대교리의 영문 첫글자 표기)을 남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칼빈주의 5대교리」의 내용

1) 인간의 전적부패 혹은 무능력(Total Depravity or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부패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상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비정상적이고 최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그 존재 전체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훼손되었음을 가르킨다. 이 부패는 인간의 육체적, 영적, 모든 부분에 확대되어 있음을 말하며 죄가 사람의 마

음과 의지,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능력해졌고 그 결과 아무런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부패 혹은 전적무능력이라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무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12)고 성경은 말한다. 이와같이 자신의 전적부패와 무능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의 감격은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2) 무조건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인간은 누구나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악되고 영원히 버림받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된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악되고 사악하며 부패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 중에서 어떤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사랑에 의한 것이지 결코 선택된 사람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성품이나 행위를 보시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선택의 교리는 사람의 부패와 죄로 파산되었던 사실만 아니고 삼위간의 영원한 언약과 관계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택은 성부 하나님께서 일정한 수의 죄인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 그의 백성이 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성자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구원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실 뜻에 동의하신 것이다. 이 언약의 시행에 있어서 성령이 하는 일은 성자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보장하신 구원을 저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성부의 선택 행위가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성자의 구속 사업과 관련되어야만 하고 택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중생사역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엡 1:4~6; 롬 8:29, 30~33; 요 15:16; 딤후 1:9; 행 13:48; 살후 2:13, 14; 계 17:14 등)

3) 특별한 구속 혹은 제한된 속죄 (Particular Redemption or Limited Atonement)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택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표시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이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인성을

취하셔서 법적인 대표자로서 자기 백성이 받을 형벌을 자신이 당하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영원히 옮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면 완전한 의를 받게 되며 모든 죄와 정죄에서 자유케 된다. 이것은 행함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속적 사역이 구원받기를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그런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구속하시고 다른 사람은 버려 두시기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제한된 것이지 구속의 가치와 능력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 (요 10:15; 롬 8:33; 요 19:2, 9, 12, 24; 히 2:17, 3:1, 9:15 등)

4) 불가항력적 은혜 혹은 성령의 유요한 부르심 (Irresistible Grace or the Efficacious Call of the Spirit)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간의 구원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가 다 함께 관여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며 성자 예수님께 주시고 성자는 정한 때에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셨다. 그러나 이 두가지 행위(예정과 구속)가 구원 사역의 완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중생 사역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성령의 중생 사역이 하나님이 부르신 죄인은 틀림없이 구원받게 한다는 교리이다.

이같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죄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성령은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시는 것이다. (롬 8:14, 30; 고전 2:10~14, 6:11, 12:3; 딤후 3:5; 엡 2:1~10, 4:4; 겔 36:26, 27 등)

5)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인 구원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or the Security of Believers)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중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저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예정되었으며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비록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시험에 빠져 실패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보호는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이러한 죄가 저들의 구원에서 영원히 상실케 하는 것은 못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궁극적인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 43:1~3, 54:10; 겔 32:40; 요 5:24, 6:35~40, 10:27~30; 롬 8:1, 29~30, 35~39; 고전 1:7~9; 엡 1:5, 13, 14; 4:30; 살전 5:23~24; 뱌전 1:5; 유 1, 24~25 등)

해외선교사 · 선교지 소식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1. 3월 9일~11일 한인교회 특별집회를 가지다.
(강사: 싱가포르 한인교회 강진선 목사)
2. 중부자바와 몇군데 극심한 수해를 입다.
3. 새 개척지 24번째 시작하다. (나반, 수코요목사, 중부자바 랄롱지역)
4. 오지사역 현황
금년 2월 한달 동안에 16개척지에서 장년 26명, 어린이 3명 결신자를 얻음, 할렐루야.

* 기도제목 *

1. 수해입은 선교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2. 새 개척지의 사역자를 위해
3. 처음 결신자들의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해

홍콩—홍종만 선교사

1. 한인교회
 - ① 조찬기도회를 가짐 (서준석집사 사무실에서)
 - ② 인도네시아에 선교비 홍콩 \$310 송금
 - ③ “씨니 싸이드”지체부자유 아동 병원방문, 위문 현금전달.
 - ④ 홍콩한인교회 부흥회 (4월21일~25일), 수양회 (4월25~27일) 개최예정, 강사: 정상우목사
 - ⑤ 금년 10월 3일에 교회 주최로 시공관 강당에서 자선음악회를 개최할 예정.

2. 중공선교

- ① 중공에서 계속 편지 접수 및 발송
- ② 성경, 찬송가, 신앙서적, 녹음테이프, 하르빈에서 찍은 사진등을 상해, 심양 등 6개처에 인편으로 발송.
- ③ 마카오교회보조 홍콩 \$4,000과 선교보조 \$1,000 전달
- ④ 대중공선교기관 “한중선교협력센터”를 조직코자 준비중
- ⑤ 마카오개척교회는 여전히 염영택목사 지도로 활동 계속

3. 내방인사

총신대학 홍치모교수, 본교회 건축위원인 노광은 장로 일행등이 내방

4. 선교사님의 동정

차녀 회숙양과 삼녀 미라양 진학관계로 귀국하여 대학에 각각 입학함.

* 기도제목 *

1. 한중선교협력센터의 출범을 위해.
2.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애굽—이준교 선교사

1. 이선교사 여권기간 연장하였음 (84년 10월 16일까지 연장)
2. 아메리칸 대학에서 아랍어 공부 계속
3. 1월21일부터 두 주간에 걸쳐 한인교회교우 전례식방 마침.
4. 카이로 한인교회 헬리오 폴리스 가정교회 동산 살람 현장 예배를 은혜중에 마침.
5. 1월26일 헬완에 있는 비호만 정신병원 방문, 원장 파며 로자박사와 담화.
6. 1월26일 카이로 노회장 아브라함 라비브 목사 내외 초대 식사대접 및 담화. 2월 1일 라비브 목사 시무하는 헬완복음주의 교회 참석하여 설교 및 성찬식 집례
7. 2월13일 애굽복음주의 교단총무 사무엘 하비브목사 방문하고 지교회 지원금 2월분 전달.

* 기도제목 *

1.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애굽선교 되도록
2. 바람이 심하게 불 때가 되어, 심할 때는 10미터 앞을 볼 수 없음.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서독—옥호기 선교사

1. 뷔츠부룩 한인교회

- ① 제직임명: 12명
- ② 구역확장: 8구역
- ③ 한국사람과 미국사람이 합동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동시 통역을 위한 헤드폰설치 계획, 일차 특별헌금 드림. 일부 기계구입 (완전설치운영과 관리위해 기도요망)

2. 하나우 한인교회

- ① 제직임명: 5명

② 구역확장: 6 구역

3. 비스바덴 한인교회

① 제직임명: 7 명

② 구역확장: 4 구역

③ 교회이전: 81년도 첫주일부터 미국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음.

④ 성례식 거행 (1월 4 일) - 학습 1 명, 세례 3 명

*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의 과로로 인한 건강지장이 없으시도록

② 3 개처 한인교회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호 주 - 김 태 현 선교사

1. 선원선교활동

① 2월 10일 스테라 마리아에서

② 2월 17일 후라이 엔젤스에서 시행

2. 내방인사환담

중공의 여러곳을 다녀온 맨시부부로부터 중공교회 실태에 대해 들음.

* 기도제목 *

1. 몹시 더운 때에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위해.

2. 한인교회 성도들의 여러문제들을 위해

아르헨티나 - 백 성 룡 선교사

공한미착

* 기도제목 *

1. 한인교회 성장과 원주민선교기반 구축을 위해

파라과이 - 김 재 창 선교사

1. 주일 낮에배 장년 200명 돌파.

2. 전체구역을 10구로 하여 구역심방 주력.

3. 남전도회 창설, 유치부, 청년부, 장년부 증설

4. 81. 1. 1 ~ 3 일 부흥성회 5 ~ 8 일은 제직 및 교사 수련회 인도, 1. 12 ~ 15 일 어린이 하기학교.

5. 새로 들어오신 7인 장로시무 공동의회에서 가결, 4월 6일 교회 헌당식 및 임직식 예정.

* 기도제목 *

1.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

2. 생활적응, 가족건강,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칠 레 - 유 재 일 선교사

공한미착

* 기도제목 *

1. 현재 빌려 쓰고 있는 원주민 교회당에서 속히 성전을 독립하여 가질 수 있도록

2. 선교사님의 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3. 온 성도의 신앙발전과 안정을 위해

인 도 - 엘리야 겔간 선교사

1. 2월은 티벳언어공부

2. 수루골짜기 선교여행자료 수집중.

3. 신약성경을 티벳 방언으로 기록할 필경사 물색중.

4. 3월엔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등 방문예정

* 기도제목 *

1. 티벳방언으로 신약성경 기록하는 일을 위해.

2. 겔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일 본 - 유 병 세 명신도선교사

1. 이권사님 부인 성경반 계속 인도.

2. 2월 8일 주일에배 후 캣크 목사 모시고 "신앙과 가정생활"에 대하여 세미나 가짐.

3. 전례대로 외래입원환자 수시전도. 대합실 전도지 비치 전도.

* 기도제목 *

1. 유선교사님 내외분의 계속적인 영육의 건강을 위해

서 독 - 박 용 삼 명신도선교사

1. 4, 5월경까지는 논문작성 완료예정.

2. 귀국후의 계획에 대해 기도중

* 기도제목 *

1. 선교사님의 논문통과 및 내외분의 건강을 위해

본부소식 - 해외복음선교회

1. 본회 부지도로 오치용강도사(주교선교부 부지도 겸직)가 3월부터 부임하다.

2. 외국선교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추진하다.

3. 3월 29일 선교월례회 통해 선교사들의 소식들다.



윤 두 한 장로

(본 교회 명예장로)

영원한 부정이 영원한 긍정으로

삶에 대한 회고—이것은 20세 전후에 일본 동경에 가서 수년 있는 동안에 싹트기 시작하였다. 강자와 약자, 빈부의 차이, 청심(淸心)과 욕심, 만년귀족과 만년천민, 지배자와 예속자, 모순과 부조리, 이것은 영원히 기하학적 평행선으로 그어질 것인가?

이 모든 비애와 굴욕, 고통을 누구 관철하여 보상해 줄 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고 영원히 미해결로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산다 하여도 사실은 산 것이 아닌 것,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아 나가기 힘든 모든 것, 차라리 동물세계에는 이러한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인생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생각하고 연구 할수록 더욱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 빨리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아 자살한 학자, 천재들의 책을 눈여겨 보고 마음에 두어 왔다. 이러한 인생의 수수께끼는 늘 나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쳐 왔고 나는 이 고민은 내게 운명적이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1930년 이래 나와 한 직장에 K라는 사람이 있었다. K는 가끔씩 내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여 왔으나 기독교나 불교를 미신으로 밖에 생각지 않던 나로서는 쉽게 응할 수가 없었다. 수년동안 반대하여 온 나였으나 무엇인지 그냥 넘길 수 없는 기이한 점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K는 차(茶)를 마시지 않는다—물론 일본 차(茶)이다—나와 같은 직장에서 근 3년을 눈여겨 보았지만 그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일본식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일할 때도 휴식시간에는 늘 따로 떨어져 혼자 앉아서 소량의 성경책을 읽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오차가 없기에 일본인들도 그를 공경하였다. K가 생활필수품 사는 것을 여러번 보았

는데 그는 일본인 상점에서는 절대 사지 않았다. 일본 상점이 편리한 곳에 있으며 물건이 많아도 꼭 조선인 상점까지 찾아가서 샀고 조선 사람을 만나면 꼭 조선말로 대화하였다. 철저한 민족주의자라 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생활을 말로 나타내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예수 믿으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한결같이 반대하여 왔다.

이러던 중 뜻하지 않게 아버지께서 별세하시자 나의 마음은 더 불안하게 되었다. 인생관은 무상하게 흔들렸고 나는 남이 보기에도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K는 이때에 더욱 내게 성경읽기를 종용해 왔고 나는 그전에 아주 반대해 왔던 것을 이때는 그렇게 반대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받아 들었다. 무언가 알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오후 4시 반에 귀가하여 식사하고 난 6시쯤에 성경책을 펴 보았다. 신약만으로 되어 있는 소행책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세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 문체가 어린이이 동요 같고 의미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 다음날 K에게 이야기를 하니 K는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어로 된 유명한 사람들의 신앙간증, 경험등을 기록한 소책 두권을 주면서 읽어 보라 하였다. 처음이지만 그런대로 새벽 1시까지의 독파할 수 있었으며 차차 의심이 생겨지며 무언가 알아질 것 같은 느낌에 재미가 있었다.

하루는 생각한 바가 있어 K를 우리집으로 초청하였다. 불신자인 다른 동료, 친구들과는 집에서도 오락장에서도 잘 만나 놀았다. 그러나 K와는 직장 외의 장소에서는 만날 일이 없었으므로 사택 방문은 처음이었다. K는 처음 오는 길인데도 일본도 틀리

지 않게 약속한 8시에 대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시간을 엄수할 수 있을까? 그를 대하기도 전에 놀랐다. 그가 방에 들어오자 우리는 곧 토론하기 시작했다. 할수록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좀 피곤을 느껴 시간을 보았을 때는 12시 자정이 다 되어 있었다. 그때는 통금이 없었으나 K는 곧 간다고 하며 집을 나서면서 다음 주일에 대구 제일교회당 어느 곳, 어느 시간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이 밤이 1934년, 2월 14일 밤이었다.

약속대로 그 다음 주일에 제일교회를 나갔다. 평일에는 읽은 책에서 의문점을 적어서 K에게 던져주며 해답을 요구하였고 K는 또 쪽지에 적어서 가만히 나에게 던져주곤 하였다. 그러나 의미가 잘 통하지 않았고 답답하였다. 대화를 해야 하는데 공무 집행할 수도 없고 그럴만한 장소도 없었다.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거울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는 도청 후원에 가기로 하고 아직 2월이라 추웠으나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어떻게 재미가 있는지 나는 의문점을 풀지 못하고는 후퇴하지 않았고 K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 수많은 지적과 기적들, 이것이 어느 정도 시인이 되어야겠고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빠른 시간에 매일의 의문점은 하나씩 둘씩 풀려갔다.

나는 K와의 대화에 점점 열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일하다가 자리를 비운데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걱정보다는 쉽게 해결되었다.

내 생활이 이렇게 변하자 오락을 같이 즐기던 옛 친구들은 예수를 믿어도 너무 빠져 미치지 말고 대강대강 믿으라고 얘기하며 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걱정하였다. 놀기를 즐기는 좋은 친구를 잃었으니 그들도 서운했을 것이다. 책은 밤마다 두 권씩 읽고 낮에 근무시간에는 쪽지를 교환하고 퇴근길에도 골목에서 토론하였다. 한번은 신사분 한 분이 주의를 주는데 꽤 멀쩡한 청년들이 질 가운데서 싸우느냐며 의아해하기도 하였다.

K와 같이 토론이 깊어 갈수록 점점 의문은 더 깊어지고 시간과 장소는 여의치 못해 갑갑하였다.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를 마치고 옛날 대구 수도산이라 하는 높지 않은 산에 올라가 마음껏 묻고 대답하였다.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된 시간인지, 우리는 조직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세 시간 이상씩 토론하였다.

여기에 특기할 것은 K가 그렇게 신학과 철학에 박식하였던 것을 미처 나는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좀 색다른 점을 느끼긴 하였으나 내가 예수를 알고 한 후부터 그 많은 질문을 그는 거침없이 대답해 주었다. 초신자의 질문이라 난제도 많았을 터인데 그는 차근차근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었다. 성인능지성인(聖人能知聖人)이란

공자의 말이 있다. 즉 자기가 성인이 되지 않고는 성인을 능히 알 수 없다. 무슨 방면이든지 고명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의 진가는 거의 그 사람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애기다. 한번 K의 집을 가 본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도 책을 쌓아 놓은 방에는 안내하지 않았다. 섭섭한 생각이 들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K의 서재에는 아무도 가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며 외형적인 것, 외식적인 것은 금물인데 자기가 공부한다는 소문이 날 것도 조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로 대화할 때에도 조금도 아는 체 하지 않으며 과장도 없다. 그러나 진정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친절히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오늘날 좀 안다 하면 교만하고 과장선전하며 외형적으로 꾸며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전도자는 많이 알아야 하나 자기를 내세울 줄 몰라야 하고 어디까지나 온유, 겸손하여 전도 받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겠다.

나는 이러한 동안 진실한 주의 종들의 부흥회에도 참석하였다. 그때의 주요 간증자들은 배은희 목사, 일본인 이와하시씨, 세계구세군참모총장, 영국인 헨리마프씨 등이었다. 3, 4개월 동안에 나는 비교적 많은 신앙간증의 책을 읽었고 의문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K의 설명을 들었다. 인생에 대한 회의와 그에 대한 모순점은 거의 풀린 것 같았다.

카알 라일의 영원한 부정은 영원한 긍정으로 전환되었다. 이 환희와 감격, 진실로 삶의 소망을 얻었다. 그후 내 신앙에는 기복도 있었으나 이때까지 배가 있는 것을 주께 감사하며 내 신앙을 돌아보면 이렇게 K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

라디오방송설교안내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김창인목사 설교

• 아세아방송 (1566KHz)

매 주일 오후 7:15

(본 교회 3부에배설함)

• 기독교방송 (837KHz)

매 주일 오후 9:40

매 주일 오후 11:30

1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교동리구역 신길훈
강동구역 김아진
홍익구역 최명숙

정능1구역 김경옥
정능2구역 민명근
정능2구역 한혜정
장위2구역 안정인
동선구역 최성자
장위2구역 김상수
쌍문구역 조숙영
동소문구역 성남선
정랑리구역 고영본
장위구역 최광호
수유3구역 이용수

● 3 지구

신당3구역 이현숙
성수2구역 성영자
시영1구역 윤부기
장중1구역 황전성
잠실5구역 모화자
신당4구역 박종삼

● 4 지구

응봉구역 최한집
설악구역 최승복
설악구역 정인숙

● 2 지구

종곡3구역 안신영
홍익구역 강영주

논현1구역 김금숙
논현4구역 박동실
성남구역 권선옥

● 5 지구

관악구역 김복수
봉천2구역 김순자
필동2구역 임경미
봉천1구역 주창목
필동4구역 양윤섭
필동6구역 허충옥
독산구역 신지철
필동7구역 박종옥
용산2구역 김대진
봉천3구역 김성만

● 6 지구

영리구역 윤혜옥
정파구역 신영선
당산구역 조영혜
화곡2구역 김옥자
대방1구역 이두영
마포구역 권승옥

용문구역 송용일
인현3구역 김순오

● 7 지구

해화구역 최장환
불광구역 최인성
역촌1구역 조두열

종로구역 조영훈
호자구역 김동열
역촌1구역 도달이
불광구역 차영림
율지1구역 조종순
호자구역 김대희
중부구역 이동기
창대역

* 축하합니다. (1월중 결혼)

- 양승인군(박봉주권사 아들) 21일
- 백재홍군과 윤선주양(동송구역) 20일
- 이남조준(김정옥집사 아들) 27일

* 위로드립니다. (1월중 별세)

- 김보비권사(논현구역) 5일

□ 권찰수첩 □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1)

본 교회 당회장 겸장인 목사님께서 앞으로 본 교회는 구역원 5세대에 일군 1명씩으로 정하여 정착하고 주밀하고 활력있는 구역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권찰 한 사람에게 5세대씩을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며 그 5세대를 근거로 하여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구역권찰 운영을 하려면 일군들의 자질 양성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게 된다. 새로운 일군을 찾아내는 일보다 일군을 양성하는 일이 계획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일군을 찾아 내어 일에 적응을 시키는 일은 적응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이 생겨 운영에 차질이 생기므로 불가능하다. 일군을 키워서 이 일을 맡겨야 한다.

오늘날 저희 교회는 많은 일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전도하는 방법도 익히고 있다. 이런 일군들이 이제 구역 권찰원으로서의 좀 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교육을 받아 일군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한 예를 든다면 일군이 어떻게 평교인들을 접촉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생활 형편을 어떻게 파악하며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더욱 실행한 면에 있어 교육은 더욱 필요하며 나아가서 확장원들로 전도할 수 있는 의욕과 용기와 기술을 주는 일을 하게 하는 일군 양성은 더욱 요절한 것이다.

저는 권찰 교육훈련에 실제적인 면에 있어 평교인을 위로, 축복, 권유, 가르치는 입장에 서야 할 일군이므로 제일 먼저 시급히 요구되는 교육은 장로교 일군으로서의 장로회 신조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장로교회의 많은 교인들이나 제직들중에 장로회 신조를 읽어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그 조항이 몇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 말이다.

장로회 12신조는 장로회 신조이면서 모든 신앙자의 신앙 표준이다. 그 이유는 이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의 총 집합이요 요약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신조중에 제2조와 제12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오는 4월 9~12일

춘기성례식 거행

교회는 1987년도 춘기성례식을오는 4월 9~12일까지 거행키로 했다. 이 성례식은 일년에 봄·가을 두번하게 되며 학습을 서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춘기성례식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문답 / 4월 9일 오전 10시 ~ 오후 9시까지
4월 10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세례식 / 4월 10일 오후 7시 본당에서
 - 성찬예식 / 4월 12일 1·2·3·4부에 배시에
- 문답자격 / ① 학습 : 교회 출석한지 6개월이상되신 분으로 만 14세이상
② 세례학습 후 6개 이상 되신분
③ 입교 : 유아세례 받은 분으로, 만 15세이상
④ 유아세례 : 만 2세 미만의 아기로 부모의 신앙적 합의자

이명달 전도사 소천

우리교회 공로전도사인 이명달전도사가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45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

올해 만 80세로 하나님께 가신고 이명달전도사는 1952년 부산 동일교회설립시절 부터 우리 교회와 애환을 같이 해 오셨다. 그후 1958년에 서울 중현교회에 부임하신 이래 충성스럽게 일하시다가 1964년 12월 27일 중현교회 시무 전도사직을 정년 은퇴하시고 공로전도사로 추대되었다.

부산 본가에서 돌아가신고 이명달전도사는 실로암 새부산 공원묘지에 장지를 정하고 지난 3월 4일 윤형철 목사의 주례로 장례식을 지냈다.

교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수)고 이명달 전도사의 추도예배를 유가족과 온교우가 함께 모여드렸다.

1981년도

대심방 시작

심방위원회는 1981년도 춘기대심방을 3월 17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7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대심방은 5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대심방 기간에도 유고심방은 계속하게 된다. 금번 춘기대심방은 각 지역의 반을 심방하게 되고 나머지는 추기심방때 하게 된다.

기독교 언론협 증회

새회장에 손경수 집사

한국기독교 언론인 협회는 지난 3월 20일~21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언론인 세미나 및 제 5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기독교신보사 편집국장인 손경수 집사를 선출했다.



한국 기독교계의 신문, 방송, 잡지의 기자들 모임인 동 언론인 협회는 4개 신문사 3개 방송, 1개 잡지사가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새회장인 손경수 집사는 월간중현 편집위원이며, 청년부 교사로 수고하고 있다.

강도사 초빙

교회는 새로 강도사 한분을 초빙했다.

새로 초빙된 강도사는 오치용강도사로 선교부 부지도로 수고하시게 되었다. 오강도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총신연구원을 마친후 수입교회·대흥교회·왕십리교회등에서 전임전도사, 대학, 청년부 지도교역자로 일하셨다.

교역자·장로 동정

*...노광현·오진국장로는 새삼전건축을 위해 건축현장감독인 최환집사와 함께 지난 1월 6일 출국,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불란서, 이태리, 일본을 거쳐 2월 12일에 귀국했다.

*...윤종성장로는 미국에 있는 따님의 초청으로 사모 신군자 권사와 함께 지난 2월 10일 출국, 4월초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우기전장로는 지난 2월 23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형철목사는 지난 2월 20일 총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Th·M) 졸업하셨다. 또한 총회교육부 주최 제 2회 전국교육세미나에 2월 17~19일까지 참석하였다. (장소 : 반도 유스호스텔)

*...정소영전도사는 지난 2월 17~

19일부터 있었던 제 2회 전국 기독교교육세미나에서 「영아부교육의 원리와 실제」란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한영철·김하진목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총회신학대학에서 열린 동기 목회신학원에 참석했다.

제2회 동기 농어촌전도

4 곳에서 마쳐

제2회 동기 농어촌전도를 네곳으로 나가 모두 마쳤다.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한 동기 농어촌전도는 4대로 나누어 지난 2월 9-14일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고 모두 마쳤다.

이번에 실시한 각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제1대 (안석렬전도사) 청석교회 - 전남 고흥.

제2대 (이양우전도사) 금산교회 - 경남 양산.

제3대 (박동실장도사) 내장교회 - 전북 정읍.

제4대 (김광래전도사) 현곡교회 - 경북 월성.

전교인 성경공부

3월 2일 개강

전교인을 상대로 성경공부를 실시하기로 한 성경공부는 지난 3월 2일 본당을 꽉 메운 가운데 개강됐다. 매주 월·화·수·목·토요일별로 과목과 강사를 달리하여 열리는 본 강의는 그동안 과목별 수강 신청을 받고 3월 2일 개강된 것이다. 1981년도 1학기는 월요일반은 시편강해 (윤영탁목사), 화요일반은 소선지서강해 (김희보목사), 수요일반은 마태복음강해 (김창인목사), 목요일반은 계시록강해 (신성종목사), 토요일반은 창세기강해 (이종윤목사)를 각각 하게 된다. 그러나 전과목 공동 필수와목으로 지난 3월 2~12일까지는 매일 이종윤목사의 「신구약개설」의 강의를 있었다.

각반의 등록 숫자는 월요일반이 33명, 화요일반 319명, 목요일반 537명, 토요일반 348명이다.

구역예배 실시

1981년도 첫 구역예배가 지난 3월 12일 (금) 각 구역에서 일제히 모였다. 본 교회에는 흑한기와 흑서기를 제외한 3~6월과 9~11월의 7개월간 모이는데 격주로 모이게 된다. 특히 금년의 구역예배는 성경공부 및 교제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성경공부를 위해 김하진목사가 구역성경공부 교재를 집필, 앞으로 교재를 중심으로 계속 모일 계획이다.

심방위원회에서는 구역예배를 전 구역이 드릴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다.

인사이동

1. 예배위원회

가. 성가부

① 퇴 임

여성성가대 박옥식
여성성가대 김영자
여성성가대 홍준영
여성성가대 지혜숙

② 임 명

여성성가대 송수민 소프라노
제1성가대 천대영 테너

2. 교육위원회

가. 교육위원회

① 임 명

유년부 김병권 (남) 임시교사
유년부 이관호 (남) 임시교사
유년부 손금숙 (여) 임시교사
유년부 이영미 (여) 임시교사
유년부 박명선 (여) 임시교사
유년부 김해진 (여) 임시교사
초등부 홍정옥 (여) 임시교사
초등부 정미옥 (여) 임시교사

제2회 주일학교교사

단기 수련회 실시

교육위원회는 1981년도 제2회 교사단기수련회를 지난 3월 2~12일까지 실시했다.

원래 계획은 3월 25~28일까지 예정이었으나 전교인 성경공부가 3월 2일부터 개강하게 되어 첫번째 강좌인 「신구약개설」을 동시 수강기로 한 것이었다. 3월 2일~12일까지 사이에 월·화·목요일에 모인 이종윤목사가 담당했다.

초등부	김명혜 (여)	임시교사
초등부	김미자 (여)	정교사
초등부	최영화 (여)	정교사
초등부	김석순 (여)	임시교사
고등부	정덕오 (남)	임시교사
청년부	황정숙 (여)	정교사
청년부	이군자 (여)	정교사

② 전 임

이정현 초등부에서 유년부로

③ 퇴 임

어새부	박길순 (여)	정교사
어새부	정수자 (여)	정교사
유치부	김윤주 (여)	
유치부	박혜숙 (여)	
유치부	김현숙 (여)	
유년부	김영철 (남)	
유년부	홍성철 (남)	
유년부	임춘자 (여)	
초등부	김성옥 (여)	
초등부	최기성 (남)	
초등부	양영숙 (여)	
초등부	서원아 (여)	
초등부	김영주 (여)	
초등부	오종록 (남)	
초등부	전용원 (남)	
대학부	이상호 (남)	

토막소식

*...어린이새신자부는 4월중에 그 동안(1~3월)등반시킨 학생을 유·초등부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영아부는 4월, 한달을 학생심방의 달로 정했고, 4월 7일은 학부모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갖기로 했고, 9월 14일은 「영아교육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교사특강을 갖는다.

*...유치부는 4월 26일 유순희선생의 연구수업을, 또 자체에 사무겸 열을 할 계획이다.

*...유년부는 4월 5일 1학기 성경교사를, 또한 이날 장정일목사를 모시고 교사특강을 하게 된다. 4월 26일에는 연구수업을 할 예정이다.

*...초등부는 4월 5일 교회주변으로 노방전도를, 10일에는 교사기도회를, 19일에는 성경이야기 대회를 26일에는 구역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등부는 4월 5일 1학기 성경시험을, 19일에는 「성경기록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학생특강을 30일에는 교사 철야기도회를 각각 가질 계획이다.

*...고등부는 4월 5일 1학기 성경시험을, 12일에는 부활절기념 성가 발표회를, 19일에는 병원전도를 가질 계획이다.

*...대학부는 4월 17일 회원기도회를 영아부실에서 가질 계획이다.

*...장년새신자부의 학습반에서는 4월 5일 학생신앙간증회를, 세례반에서는 4월 19일 성경암송대회를

각각 가질 계획이다.

*...장년부는 4월 17일 장년부실에서 교사기도회 및 교사특강을 가질 계획이다.

*...노년부는 4월 19일 노년부실에서 반별친교회를 가진다.

*...산업전도교육부는 4월 7일 교사철야기도회를, 11일에는 반장 임원훈련을 각각 할 예정이다.

*...선교부는 4월 16일 교사특별회의를, 4월 27일에는 새성전에서 철야기도회를, 4월 28일에는 중·고등반 특강을 김영휘강도사가 실시 할 예정이다.

*...새가정부는 4월 5일 학생신앙간증회와 초청좌담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 좌담회에는 대내교인중에서 초청할 계획이다.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에배후
- 매주 수요일에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각 종 통 계

1981. 2. 1. (매월 첫 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낮	I 부	125	278	436	총세대수	신	3,811		
		II 부	398	950	1,348					
		III 부	433	968	1,401					
		IV 부	302	721	1,023					
		계	1,291	2,917	4,208					
배	주 일 저 녀	298	651	949	급	교인	총수	남 3,596		
	삼 일 저 녀	160	301	461				여 5,201		
주	일	어린이새신자부	29	37	66	교인	세례	입교	남 1,974	
		영 아 부	136	80	216				여 3,411	
		유 치 부	122	130	252				계 5,385	
		유 년 부	180	204	384				남 500	
		초 등 부	203	184	387					여 413
		중 등 부	179	167	346					
		고 등 부	243	245	488				남 293	
		대 학 부	86	82	168					여 390
		청 년 부	77	86	163					
		교	학	장년새신자부	51				138	189
장 년 부	34			323	357	여 987				
노 년 부	37			118	155	계 1,816				
산 업 교 육 부	11			67	78					
선 교 부	34			80	114					
합		계	2,885	5,179	8,064					

3월의 행사

2일 / 제직회 · 재정위원회 월례회
 6일 / 전체철야기도회
 8일 / 남전도회 월례회 · 권사회 월례회
 15일 / 여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선교부실행위원회 · 출판국월례회의
 18일 / 권사회 철야기도회
 22일 /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29일 /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
 31일 /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겨울도 이제 다 끝나고 도처에서 완연한 봄빛이다. 자연과 같이 우리에게도 한번쯤은 새롭게 활기 떠는 신앙의 봄의 계절이 왔으면 싶다.

금년들어 부쩍 지면의 부족을 느끼며 모자라는 가운데 열심으로 해 보았다.

편집실에서 떠맡게 된 녹음테이프 보급문제 및 몇권의 교재 발간등으로 바쁜가운데 발간 일자를 제대로 못 시키게되어 미안하기 그지 없다.

*...지난호에 이어 이종윤목사의 충공 선교여행보고서가 끝을 맺는다. 부쩍 늘어난 공산권 특히 중공선교에서 관심속에서 올바른 충공의 오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꼭 중요하리라 생각

되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는다. 좋은 원고를 주신 이종윤목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교육위원장 윤형철목사님이 밝혀주셨다. 그동안에 이모양 저모양 열심으로 해왔었는데 바른 교육목표 및 방향으로 각 주일학교에서 효과있는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금년부터 새로 구역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김하진목사님이 공과를 집필하셨다. 이에 그 사용법과 공부인도법에 관한 글을 써 주셨다. 구역담당 요원들은 이를 숙지하여 효과있는 구역성경공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보다 지속적인 일이 되었으면 한다.

* 월간충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중주

이형수 김정태

월 간 충 현

3월호

제9권제3호

통권 제86호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조현명

주 간 / 윤형철

편집부장 / 이형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장로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3월29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 · 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교회는 교회정면에 새성전의 조감도와 교회의 목표 및 표어를 게시하였다.〉



〈주일학교 유치부의 겨울 계절학교. 지난 2월23일~25일 까지 모였다.〉



〈주일학교 영아부는 3월 3, 4일 영아부 계절학교를 실시했다.〉



〈교회는 각종 헌금을 헌금창구를 통하여 드리도록 교회들에 헌금창구를 신선했다.〉



〈전교인 성경공부를 실시키로 하고 그 첫번째가 지난 3월2일 시작됐다. 첫 2주간은 이종윤목사가「신구약개설」을 강의했다.〉



〈우리 교회의 공로전도사인 이명달 전도사가 지난 3월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 부산에서의 장례식 광경〉

실로암
못가에서



4월19일은 부활주일,
4월12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4월12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다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감사·결심하는
시간들로 보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이사야 53 : 4 ~ 6〉